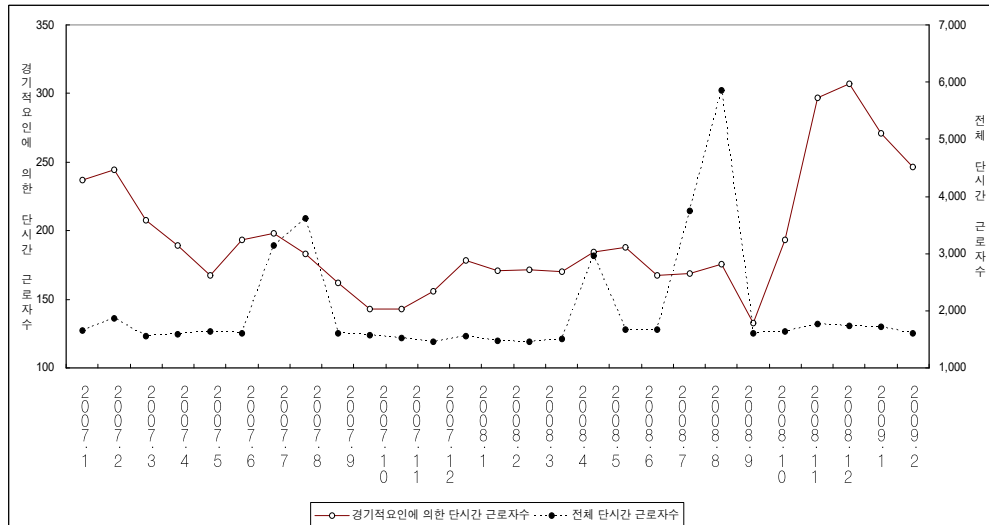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추이

- 경기불황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수, 2009년 들어 대폭 증가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 중 지난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임.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난주 단시간 근로의 이유를 10가지¹⁾로 묻고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이 중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와 ‘사업부진, 조업중단’의 항목에 답한 자를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함.
 -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수는 2007년과 2008년 중 대체로 10만명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들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 현재 24만 6천명에 육박하고 있음.
 - 전체 단시간 근로자 중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수 비중 또한 2008년 3월 11.8%에서 2009년 3월에는 15.4%로 증가하였음.

[그림 1]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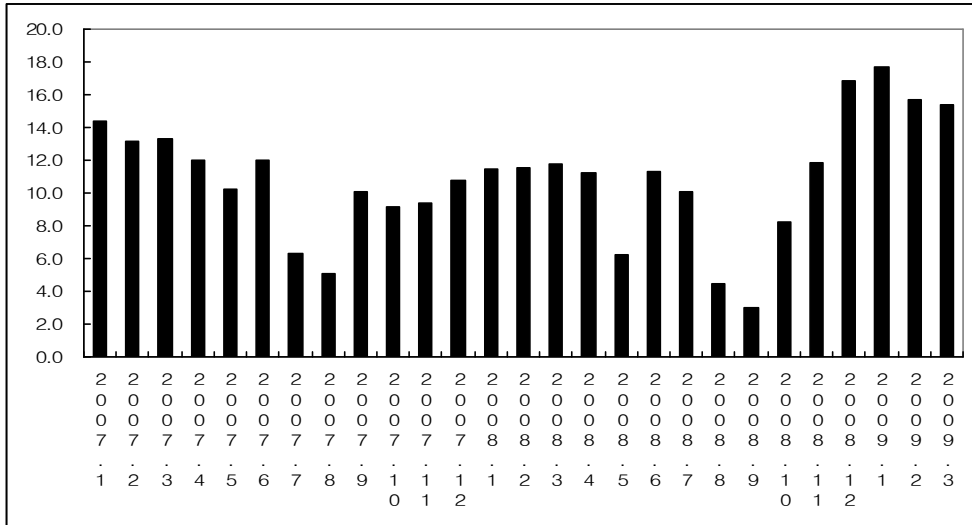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 1. 일시적 병, 사고 2. 일기불순, 3. 연(휴)가, 공휴일, 4. 교육, 5. 육아, 6. 가족적 이유, 7. 노사분규, 8.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9.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 10. 기타

[그림 2] 전체 단시간 근로자 중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여성, 청년층, 상용직에서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수 증가 주도
 - 최근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를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30대의 청년층에서 증가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에서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임시직은 소폭 증가, 일용직은 대폭 감소하였음.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 감소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경기침체에 대해 근로시간 감소보다는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자 또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KLI**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표 1〉 전체 단시간 근로자 중 '경기적 요인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비중(인적속성별)

(단위 : %)

	성별		연령별						종사상 지위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2007.1	72.6	27.4	0.8	6.1	24.4	38.8	19.4	10.5	7.6	23.5	68.9
2007.2	75.4	24.6	0.0	6.6	24.6	36.7	20.5	11.7	7.2	18.3	74.5
2007.3	73.1	26.9	0.0	9.8	26.0	32.1	20.9	11.1	3.6	21.8	74.5
2007.4	68.7	31.3	0.0	6.9	23.9	35.8	21.3	12.1	4.8	23.6	71.6
2007.5	69.0	31.0	0.0	4.4	20.8	38.1	27.2	9.6	5.5	23.8	70.7
2007.6	65.4	34.6	0.0	7.6	17.4	39.3	26.8	8.8	6.8	31.4	61.9
2007.7	65.3	34.7	0.6	5.7	22.0	32.0	26.6	13.1	8.0	22.2	69.8
2007.8	64.9	35.1	0.4	4.6	20.5	35.2	26.3	12.9	6.9	21.9	71.2
2007.9	70.6	29.4	0.0	6.8	19.8	34.9	27.1	11.4	5.7	22.7	71.6
2007.10	66.0	34.0	1.5	5.2	16.4	39.0	27.2	10.7	4.9	20.1	75.0
2007.11	72.3	27.7	0.8	5.9	16.6	44.1	24.3	8.3	5.6	23.0	71.4
2007.12	73.4	26.6	0.6	4.4	16.8	37.7	27.7	12.8	6.4	21.3	72.3
2008.1	60.2	39.8	0.5	5.8	19.5	38.4	22.3	13.4	4.2	24.3	71.6
2008.2	66.5	33.5	0.4	5.4	18.7	38.7	22.5	14.2	6.3	16.7	77.0
2008.3	68.7	31.3	0.0	4.1	19.1	40.5	24.2	12.1	2.6	21.4	76.0
2008.4	73.3	26.7	0.6	4.1	17.3	40.0	26.7	11.3	4.1	16.5	79.4
2008.5	71.0	29.0	0.3	4.2	20.7	38.3	25.4	11.0	4.2	19.1	76.7
2008.6	66.4	33.6	0.0	7.1	18.3	38.4	25.6	10.7	6.9	27.7	65.4
2008.7	67.3	32.7	1.4	8.1	17.3	34.0	28.3	11.0	6.5	27.1	66.4
2008.8	70.9	29.1	0.4	8.1	14.7	36.1	28.1	12.5	4.9	17.9	77.1
2008.9	70.9	29.1	0.9	2.6	16.5	39.9	25.9	14.2	3.9	14.2	81.9
2008.10	65.7	34.3	0.3	5.5	15.0	38.7	26.3	14.2	3.0	21.0	76.0
2008.11	69.4	30.6	0.3	4.3	19.1	40.0	23.9	12.5	7.0	18.2	74.8
2008.12	70.8	29.2	0.5	8.8	20.5	34.9	24.5	10.9	18.2	20.1	61.7
2009.1	68.7	31.3	0.6	8.4	19.7	36.9	26.9	7.5	18.6	19.6	61.8
2009.2	65.5	34.5	0.5	7.5	21.8	35.6	24.6	10.0	16.9	24.9	58.3
2009.3	68.1	31.9	0.2	8.1	23.3	31.1	27.9	9.5	16.5	25.1	58.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